
-발트3국 선진시책 및 도시개발사례 비교탐방-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천시의회

1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IT 강국인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IT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심층 분석하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탐구.
- 지난해 독립 100주년을 맞은 라트비아를 방문해 올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방안 모색.
- 구시가지와 신도시가 조화로운 발트3국을 방문하여 선진국가의 도시개발 계획을 알아보고 우리시의 도시개발과 구시가지 활성화 방향 제시.

□ 출장 기간 : 2019. 12. 19.(목) ~ 12. 25.(수) 【5박7일간】

□ 출장 국가 :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출장자 명단

연번	직위	성명
1	의장	홍헌표
2	부의장	김학원
3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
4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5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6	의원	김하식
7	의원	서학원
8	의원	심의래
9	의회사무과장	김영배
10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
11	의정팀장	이보철
12	주무관	김수미
13	주무관	장 웅

□ 소요예산(의원)

- 총 소요(예산)경비: 23,920천원 (1인당 2,990천원 * 8명)
- 국가등급 : 다등급
- 지급기준 : 의장·부의장 : 1호라 / 의원 : 2호가
- 지원 경비 : 20,148천원 (1인당 2,518천원)

○ 자부담 : 3,771천원 (1인당 자부담 : 471천원)

□ 방문근거

○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의회규칙 제2007호)

○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개최(2019.12.11.)

2

세부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제1일 12/29 (목)	인천공항 ICN SVO	SU0251	10:30 13:10 17:10	인천공항 제2터미널 도착 후 출국수속 인천공항 출발 / 모스크바 향발(약 10시간 소요) 모스크바 공항 도착 후 TRANSIT(약 2시간 25분) 모스크바 공항 근처 소방서 ПЧ № 41 방문(예정) ADD : Охтинский пр-д, 6, Москва, 141411
	SVO	SU2262	19:35	모스크바 출발 / (에스토니아)탈린 향발(약 1시간 55분 소요)
제2일 12/20 (금)	탈 린		10:30	[탈린시청 TALLINN CITY OFFICE] 방문(예정) ADD :Vabaduse väljak 7 15199 Tallinn / TEL : +372 640 4141 https://www.tallinn.ee/eng/ 전자정부의 최첨단 에스토니아 전자정부시스템 관련 질의 응답 IT 및 SW 교육기관 관련 질의 응답 및 의견 교류 노인복지 시스템 관련 질의 응답 [탈린 시청사 광장] 15세기 건물의 진수라는 [세자매건물] 견학 탈린의 가장 크로 장엄한 돔을 가진 성당 [알렉산드로 넵스키교회] [툼페아 언덕] [툼페아 성(외관)] 등 견학
제3일 12/21 (토)	탈 린 파르뉴 시굴다 리 가		11:00	(에스토니아) 파르뉴로 이동 (130km 약 2시간 소요) [파르뉴시청사][엘리자베스 교회] 등 [구시가지] 견학 시굴다로 이동(175km 약 3시간 소요) 시굴다 노인복지주택 MADLIENA 방문(예정) ADD P32, Madliena, Madlienas pagasts, LV-5045 TEL : +371 65039666 http://www.pansionats.lv/ 라트비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투라이다 성(내부)] 관람 (라트비아) 리가로 이동 (70km 약 1시간소요)

일자	지역	교통편	시 간	여 행 일 정
제4일 12/22 (일)	리가 툰달레 샤울라이			리가소방서Valsts ugunsdzesības un glābsanas dienests 방문(예정) ADD Maskavas iela 5, Latgales priekšpilsēta, Rīga, LV-1050 TEL : +371 67 075 801 https://www.vugd.gov.lv/ 별 세개를 들고 서있는 파란 여인의 [라트비아 자유의 여신상] 서로 다른 세가지 건축양식의 건물이 나란히 위치해 있는 [삼형제 건물] [검은머리전당][화약탑][리가성][피터성당] 등 관광 (라트비아) 룬달레로 이동 (80km 약 1시간 30분소요) 귀족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룬달레성 (내부)] 시찰 샤울라이로 이동(85km 약 1시간 30분 소요) 언덕위에 여러가지 십자가가 수도 없이 펼쳐져 있는 [십자가의 언덕] (리투아니아) 빌뉴스로 이동(150km 약 2시간 30분소요)
제5일 12/23 월	빌뉴스 트라카이 빌뉴스			(리투아니아) 트라카이로 이동 (30km 약 40분 소요) 호수에 둘러 쌓인 붉은색 지붕을한 [한쪽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성] 빌뉴스로 귀환(30km 약 40분 소요) 국영사회복지단체 공식방문 Matulaitis Social Center TEL : +370 6996 5856 ADD J. Matulaicil a. 3, Vilnius 아치형으로 빌뉴스의 관문으로서 1522년에 개방된 [새벽의 문] 화려하고 장엄한 조각과 황금색 테코레이션이 인상적인 [성 카지미엘스 성당] [빌니우스 구 시청사 및 광장] [대학교] 빨간 색깔의 고딕 양식의 [성 안나교회][대통령 궁] 등 견학
제6일 12/24 (화)	빌뉴스 VNO SVO SVO	SU2165 SU0250	16:20 19:15 20:45	[빌뉴스 시의회 Vilniaus miesto savivaldybė]방문(예정) ADD : Konstitucijos pr. 3, Vilnius 09601 빌뉴스 시의회 및 인천시의회 업무관련 질의 응답 및 의견 교류 https://vilnius.lt/en/ 빌뉴스 공항 출발 / 모스크바 향발(약 1시간 45분 소요) 모스크바 도착 후TRANSIT(약 1시간 30분) 모스크바공항 출발 / 인천공항 향발(약 8시간 45분 소요)
제7일 12/25 (수)	ICN 인천공항		11:30	인천공항 제2터미널

□ 에스토니아

○ 국명 : 에스토니아 공화국(Republic of Estonia)

○ 수도 : 탈린(Tallinn, 42.6만명)

○ 면적 : 45,336 km²(한반도의 1/5배)

※ 대부분 평지로 구성(최고 지대는 318M)되어 있으며, 국토의 48%가 삼림지대, 10%가 섬(1,520개)으로 구성, 러시아 및 라트비아와 각각 접경

○ 인구 : 약 132.4만명(2018기준)

○ 민족 : 에스토니아인(69%), 러시아인(26%), 우크라이나인(2%) 등

○ 종교 : 러시아정교(16%), 루터교(10%)

○ 언어 : 에스토니아어(공용어), 러시아어(전체 인구의 약 30%)

○ 기후 : 서늘한 대륙성 기후(-2.0 ~ 19.4℃)

○ 주요 경제지표

- GDP : 260억 유로 / 1인당 GDP : 19,450유로
- 경제 성장률(2018년) : 3.9% / 실업률 : 5.4%
- 교역(2018년) : 총 306억 유로(수출 144억 유로, 수입 162억 유로)
- 화폐단위 : 유로
- ※ 외환보유고 : 4,685억 달러(2018년말, 세계 5위)

□ 라트비아

○ 국명 : 라트비아 공화국(Republic of Latvia)

○ 수도 : 리가(Riga, 64만명)

○ 면적 : 64,589km²(한반도의 약 1/3)

※전역이 대체로 평지로 구성(최고 고지는 312m)되어 있으며, 국토의 50%가 삼림지대. 러시아,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국경 접경

○ 인구 : 약 200만명

○ 민족 : 라트비아인(62%), 러시아인(25.4%), 벨라루스인(3.3%) 등

○ 종교 : 루터교, 가톨릭교, 러시아정교

○ 언어 : 라트비아어(공용어)

○ 기후 : 북유럽 대륙성기후

○ 주요 경제지표

- GDP : 294억 유로 / 1인당 GDP : 15,328유로
- GDP 성장률 4.8% / 물가상승률 : 2.5%
- 교역 : 총 278억 유로(수출 123.6억 유로, 수입 154.8억 유로)
- 화폐단위 : 유로

□ 리투아니아

○ 국명 : 리투아니아 공화국 (Republic of Lithuania)

○ 수도 : 빌뉴스 (Vilnius, 57.4만명)

○ 면적 : 65,300km²(한반도의 약 1/3배)

※대부분 평지로 구성(최고 지대는 294m)되어 있으며, 국토의 28%가
삼림지대로 라트비아, 벨라루스, 폴란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와 각각 접경

○ 인구 : 약 279만명

○ 민족 : 리투아니아인(83%), 폴란드인(6%), 러시아인(4.8%)

○ 종교 : 가톨릭(79%), 러시아정교(4.1%), 개신교(1.6%)

○ 언어 : 리투아니아어(공용어)

○ 기후 :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교차

○ 주요 경제지표

- GDP : 451억유로 / 1인당 GDP : 16,111유로
- GDP 성장률 : 3.5% / 물가상승률 : 2.5% / 실업률 6.0%
- 교역 : 총 731억유로(수출 371억유로, 수입 360억유로)
- 화폐단위 : 유로(2015.1.1. 유로존 가입)

4

e-에스토니아(전자정부)

에스토니아는 부족한 인구와 한정된 자원 등 열악한 경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1991년 독립 직후부터 ICT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함. 그 결과 현재는 전자 영주권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 온라인 투표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 유럽위원회에서 평가한 디지털경제 사회지수 세계 9위, 전자정부 서비스 1위의 국가로 평가 됨.

□ 에스토니아 정부의 4대 핵심 디지털 프로젝트

○ (전자영주권) 에스토니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시민권을 발급받아 온라

인으로 EU기반 회사 설립 및 관리가 가능하며, 세금 신고, 은행계좌 개설, 계약 및 디지털 서명 등 공공 및 민간 전자 서비스 이용이 가능. (단, 투표참여 불가) 최근까지 154개국, 45,000명이 신청해 이들이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창업한 상태.

- **(전자투표)** 유권자는 ID카드 또는 모바일 ID를 사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투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에스토니아는 2005년 지방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2007년에는 의회선거에서도 i-투표를 사용.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 비용은 물론 노동시간을 단축. (절약된 누적 시간은 11,000일로 환산)
- **(전자주민증)** 전자칩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속하여 사용 가능. 에스토니아 국민의 98%가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건강보험, 대중 교통카드, 전자서명, 전자처방전 등 온라인 기반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
- **(X-Road)**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2001년 도입. 공공기관·기업·개인이 연결되어 공공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파악 가능. 공공서비스의 99%가 연중무휴 온라인으로 제공. (단, 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는 불가) 이로써 에스토니아 정부는 매년 844년 이상의 노동 시간을 절약.

□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간 e-에스토니아

- 이밖에도 에스토니아는 보안 및 안전분야(KSI블록체인, 전자법, 전자경찰), 건강관리(전자 건강기록, 구급차, 전자처방), 전자 교통서비스(지능형 교통시스템, 모바일주차), 비즈니스 및 금융(전자세금, 전자뱅킹, 전자 상거래 등록), 교육, 전자 거버넌스(정부 클라우드, 데이터 대사관, 전자캐비넷) 등 사회 전반에 ICT 산업을 적용.

□ 시사점

- 온라인 기업 설립(3시간 소요)의 98%, 온라인 बैं킹 거래 99%, 온라인 세금 신고(3분 소요) 98%, 공공 서비스의 99% 이용이라는 통계에서 보듯 에스토니아는 ICT 기반이 탄탄함을 증명. 이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과 투명한 정보공개·개방, 규제를 없앤 간소화된 공공 서비스 절차 등이 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냄에 따라 가능.
- 정부-공공기관-기업-개인 간 연계 플랫폼, 투자 친화적인 시스템, 정부의 규제혁신 등 전략이 주효.

-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는 주변 정보통신 선진국인 스웨덴, 핀란드의 영향과 인건비가 낮은 에스토니아로의 사업이전 등 자연스럽게 IT 기반 형성. 또한, 적은 인구로 인한 정책적 추진이 효율적이고 용이. 젊은 정부 내각의 과감한 추진이 주효.
-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비롯한 5G 등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 및 인공지능 등 빅데이터 활용이 저조. 이는 관련 법 및 제도적 규제와 한계도 한 가지 요인.
- 정부 3.0 등 정부시책을 통한 정보공개 및 정보개방을 꾸준히 이끌어 온 결과 공공, 민간 분야의 거시적인 성과를 도출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정보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임.

5

e-에스토니아(IT 교육)

□ 에스토니아의 교육 특징

- 정보학 및 기업가 정신 등 선택 과목
- 언어(국어)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수학 과목
- 양성 평등 및 성교육 등 건전한 성관념을 위한 교육
- 시민의식 과목을 통한 민주주의 정치의식 조기 함양

□ 에스토니아의 교육 시스템

- 에스토니아 교육정보 시스템은 에스토니아의 교육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주 데이터베이스로 교육기관, 학생, 교사 및 강사, 졸업논문, 학습 자료 및 커리큘럼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저장.
- 에스토니아 학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은 ekool과 studio, 교사는 시스템에 성적 및 출석 정보를 입력하고 숙제를 게시하며 학생의 행동을 평가, 부모는 관련내용을 교사와 피드백, 교육부 관리자는 학교 전체에서 데이터를 쉽게 통합 가능.
- e-schoolbag은 교육부에서 개발한 디지털 학습 자료 포털, 주요목적은 사용자가 여러 포털에서 자료를 검색할 필요 없이 단일 지점에서 디지털 학습 자료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제공. 기능으로는 교사는 컬렉션을 만들고 사용자와 공유, 학습 자료의 통계를 수집, 사용자는 자료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 제시.

□ 에스토니아의 IT교육

- 에스토니아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IT와 기업가 정신이 융합된 스타트업식 교육.
-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에스토니아 통합 IT교육재단인 HITSA를 통해 교사 및 강사들에게 IT신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학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전수.
- 초등학교 1-4학년에겐 기본적인 코딩 교육, 5-9학년부터 웹 프로그래밍 등 고급 코딩 교육과 로봇 관련 기술 교육, 10-12학년은 웹 프로그래밍 교육, 웹사이트 및 웹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진행.
- 에스토니아는 교차과목 주제라는 특수한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며 소프트웨어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교차과목 수업에 융합.

□ 시사점

- 에스토니아 IT교육은 IT재단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교차과목 주제 형태로 수업과 접목시켜 자연스럽게 창의·융합 교육에 접근.
-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꾸준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
-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으로 창의·융합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형태.
-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1,641개교를 소프트웨어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 초등학교 5-6학년은 2019년부터 '실과' 과목에서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 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단순한 코딩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문제도 프로그래밍을 통해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상황별 교육이 필요.

6

e-에스토니아(탈린 시의회)

□ 탈린 시의회

- 탈린 시의회는 지방 정부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독립적이며 시민의 이익을 대변. 4년 임기제로 지방정부위원회 선거법에 근거해 선출.



○ 2017년 10월 15일 지방의회 제9회 당원선거가 실시되어 10월 24일에 등록되었으며, 선거 결과는 10월 25일 발표되어 2017년 10월 26일부터 제9회 지방의회가 시작됨.

□ 탈린 시의회의 기능

- 의회에서는 탈린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이행하며, 지방세를 부과하고 세율을 개정함.
- 개발 계획을 승인, 수정 및 채택.
- 평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
- 시의회가 시장과 부시장 선출.
-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관과 공무원, 해당 자치단체를 선출.
- 탈린 시의회가 설립한 단체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
- 제안서 제출, 회의의 의제, 논의된 질문의 요지 및 그 순서 등과 관련한 발언 및 이의제기.

7

라트비아 리가

□ 리가 시의회

- 리가 시의회에는 8개의 위원회로 구성. 이 위원회는 리가 시의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회의에서 고려할 사안을 준비하고 리가 시의회 의사 결정, 지방 자치 단체의 구속력 있는 규제 및 기타 규제 제정의 진행 상황을 평가함. 또한 위원회의 통제 하에 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부의 요청과 개별 민원을 검토함.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제안을 리가 시의회 및 시 공무원에게 제안. 그 후 리가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정 및 리가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

○리가 시의회 의원은 공개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

○시민과 리가 시의회 회의에 초대 된 사람은 리가 시의회 의장의 허가없이 토론에 참여하고 회의를 방해 할 수 없음.

○리가 시의회의 정기 회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리가 시의회 의장이 소집하여 회의 시간, 장소 및 의제를 결정.



○리가 시의회의 의장이 다른 회의 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리가 시의회의 정기 회의는 수요일 12:00에 개최.

○리가 시의회 회의는 주 언어로 진행되며 회의에서 검토할 초안 결의 및 기타 문서는 공식 언어로 제출하여야 함.

○리가 시의회에는 발표된 회의 안건에 포함된 문제만 고려대상으로 하며, 의원 중 2/3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

○리가 시의회 회의에서의 투표는 공개적이며 구두로 진행. 지방 정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우 비밀 투표로 투표 할 수 있고 비밀 투표에 의한 결정은 단순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짐.

빌뉴스는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 빌뉴스는 북유럽 국가 중 두 번째로 젊은 도시(1위 코펜하겐)이며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유럽의 10대 도시 중 하나임. 파이낸셜 타임즈 투자 전문가 부문 가장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를 위한 유럽선거에서 7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미래 3대 도시 중 하나로 선정. 혁신적인 결정과 공개적인 데이터 공유로 빌뉴스 시청은 3년 연속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로 평가 됨.

□ 빌뉴스시의 4대 정책 우선순위

- 도시의 전략적 비전 구축 및 구현
-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에 대한 투자 유치
- 시민, 방문객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개적으로 행동



□ 빌뉴스시의 정책 노하우

- 다양한 데이터 개방 및 현대적인 고객 서비스 실천으로 공공 행정과 민간 부문 간 거리를 좁힘.
- 특히 내부의 복잡한 절차보다는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 관료주의와 의사결정 순위가 줄어 듦.
- 이후 부서 수준을 간소화 해 행정부는 41개의 사무실로, 그 기능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3개의 그룹으로 재편.
 - 교육 및 사회 복지 서비스와 같은 시민 및 도시 방문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
 - 인프라 또는 도시 개발 사무소와 같은 도시 환경 및 복지를 통해 간접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

- 법무 그룹, 인사 관리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제공

□ 셋째가 태어나는 도시 빌뉴스(빌뉴스의 보육 혜택)

○ 빌뉴스는 리투아니아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수가 증가하는 도시로 매년 7,000명의 리투아니아 셋째아이가 빌뉴스에서 태어남. 이에 따라 빌뉴스는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 혜택을 늘림.

○ 빌뉴스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5만개가 넘지만 최근 4년간 130개를 추가 설치.

○ 자녀를 사립 유치원에 데려 가는 부모를 위한 100유로 보상, 유치원 학교 환경 개발을 위한 지원금 지원, 보육교사 및 조수, 요리사 등을 위한 급여 인상.

○ 근로 가족을 위해 추가비용 없이 오후 6시까지 초등학교 연장 수업 실시.

○ 전자 어린이 건강 증명서 도입(서류준비를 위한 번거로운 병원 방문불필요)

○ 학교에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창작 워크샵 자금 지원.



□ 세계를 유혹한 빌뉴스의 마케팅(빌뉴스의 관광 마케팅)

○ ‘관광객을 매혹시키려면 도시는 재밌어야 하고 유혹할 수 있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청중,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빌뉴스를 유럽의 “G-스팟” 으로 묘사한 Go Vilnius 광고 캠페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관광객 증가로 이어짐.

○ 빌뉴스의 과학자들이 3D 레이저 나노 스케일 기술을 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노 예수 탄생 작품을 만들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교황에게 전달, 2018년 교황이 리투아니아 방문 시 빌뉴스를 찬양하는 자비로운 하나님 이미지를 가상현실로 재현.

○ 거리 이름에 우호도시 국가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다른 국가 및 개인의

이름을 가진 12개의 길거리 테이블 설치.

○성 평등을 위해 싸우는 신호등, 그린 라이트가 시작될 때 불이 켜진 신호등은 여성의 실루엣이 점등.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타운은 빌뉴스의 겨울 명함.

□ 빌뉴스의 미래 먹거리 사업

○핀테크, 생명과학, 레이저 기술은 빌뉴스의 3대 산업

○2016년 발트3국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공원 ‘빌뉴스 테크 파크’ 오픈.
신생기업, 기술회사, 벤처 캐피탈 펀드 등 60개 이상의 조직을 통합.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개방형 데이터 비즈니스.

□ 타인을 돕는 일에 종사하는 이를 우대하는 빌뉴스의 사회기풍 조성

○사회 복지사 급여를 50% 이상 대폭 인상.

○빌뉴스에서 종사하는 의료진(의사, 소아과 의사, 치료사, 간호사)의 월급을 20% 인상.

○간병인과 간병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장려.

○4곳 중 3곳의 고아원을 폐지 후 4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가정집에 입양, 육아 시스템의 구조 조정을 위한 자금 할당, 지원.

□ 접목할 만한 빌뉴스의 프로젝트

○Kiss and Ride (등하교 승하차 전용 정류장)



☞ 학교와 유치원 근처에 등하교시 승하차 전용 정류장을 설치하여 차량 혼잡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주정차 구역 확보. 총 16개 교육 기관에서 82개 정류장 확보.

○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 차선 제어 시스템



☞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A 대역(대중교통 차선, 무궤도 버스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을 포착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무궤도 버스에 설치된 비디오 레코더는 "4+"(끼어들기 합류 허용지점)기호가 표시되지 않은 차선에서 운전하는 교통 위반자를 자동으로 녹화. GPS 좌표를 사용하여 위반차량을 감지하자마자 번호판을 스캔, 사진으로 캡처하여 프로토콜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 위반차량 단속 및 대중교통이 정시에 도착 할 수 있도록 관리.

□ 시사점

-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발트3국은 EU 지향적 정책을 펼쳐오며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타 유럽국가로의 인구 이탈 현상의 부작용 발생. 빌뉴스의 경우 젊고 과감한 시책 추진으로 꾸준히 인구 유입 추세.
- 부서 개편, 미래전략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으로 작용.
- 어린이를 위한 시설 및 보조금 확대 등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책 추진.
- 몸이 불편하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시에서 더 우대해 줌으로서 건강한 사회기풍 확립.
- 호기심을 유발하는 젊고 과감한 홍보를 통해 빌뉴스를 단번에 세계에 각인, 끊임없는 이벤트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 정착.
- 우리시는 관료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행정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상급 기관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앞 도로는 통학 시간 때 혼잡할 때가 많음. 자녀를 등교시키는 자가 차량이 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도로에서 학생들을 비상 하차 시키면서 발

생. 등하교 특정시간 임시로 정차 할 수 있는 정차구간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보장 될 것임.

- 일정한 구간을 순환하는 공용버스는 교통흐름과 도로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 빌뉴스의 무궤도 버스처럼 하나의 차선만 운행하는 경우의 단순조건보다 특정 데이터 추출이 어렵겠으나, 데이터를 추출하여 도로 환경 개선과 도시 대기질 측정, 정류장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등에 활용해야 할 것임.

9 Matulaitis 사회복지센터

□ Matulaitis Social Center 운영



- Matulaitis Social Center는 인간의 존엄성을 돌보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어린이, 정신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센터로 1989년 교구가 설립되어 1996년 어린이 탁아소, 2000년 사회센터, 2003년 가정지원센터로 범위를 확대.
- (사회복지센터) 정신 장애 분야 성인을 위한 2일 보육 그룹,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활동, 지역사회 축제 등 지원
- (결손가정지원센터) 유치원, 가족, 교육프로그램, 심리 사회 프로그램 운영
- (열린공동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 프로젝트. 8명 2그룹, 일과[아침서클 활동/기도/사회적응훈련(연극활동, 컴퓨터수업 등 기타)/휴식/노동시간(식품만들기, 다양한 수공예품)/점심/평가/기도], 다양한 문화행사, 휴양지, 여름캠프, 박람회 참여
- (데이 케어 센터 “children to children”) 7-12세 어린이를 위한 주간 센터 업무, 감정 및 행동, 학습에 문제가 있는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또는 그 가족이 개별 상담을 하도록 지원

- (주간 보육센터) 월요일-목요일(스포츠, 공예, 요리 등 기타 활동), 과제물, 식사, 사회적 기술 습득 훈련, 금요일(빌뉴스 도심 여행)
- (‘The Spring-Board’ 프로그램) 12-18세, 학습 장소를 찾거나 직업을 추구하는데 도움, 개인 관심사항 발굴, 심리상담 등 청소년을 위한 장기프로그램
- (SOFKE) 청소년과의 거리활동
- (가족 서비스) 실업, 갈등, 아이 부양의 어려움, 중독, 고용 프로그램, 개인심리 및 사회 상담
- (자금조달) EU재단, 사회보장 노동부, 개인 스폰서, 빌뉴스 시청

□ 시사점

- Matulaitis 사회복지 센터는 설립 초기에는 국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시에서 운영. 현재는 20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결혼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센터의 두 개의 영역에서 활동. 시설의 이용은 종교와 무관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집단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 사회복지사는 평균 40-50명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등 담당. 100여명의 무료봉사자가 활동, 이중 유럽연합 외국자원봉사자는 10%. 외국자원봉사자에게는 숙소 및 교통비 제공.
- 사회 적응 훈련과 심리상담,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

10

발트3국의 노래하는 혁명과 주권독립

□ 침략과 탄압의 발트3국

-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3국은 13세기 이후 지속적인 외세의 지배와 탄압을 받아오다가 1918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함. 제2차 세계대전 중 또 다시 독일 및 소련의 점령 하에 주권 상실.
- 1939년 8월 23일 발트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러시아와 독일(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해 ‘독소불가침조약’ 이 비밀리에 체결된 소위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 으로 발트국은 이내 강제로 소련에 편입.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의 이 다른 점령 하에 약27만5천명의 발트국 유대인이 학살 되었으며, 소련에 의한 강제이주, 언어말살 정책과 인적 청산 등 탄압의 역사를 겪음.

○ 1944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에 합병되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모스크바 정부로부터 비밀협약이 공식적으로 무효화 됨.

□ 노래하는 혁명 620km 인간띠로 일궈낸 독립

○ 소련의 식민지가 된 날로부터 50년이 된 해인 1989년 6월 23일 발트3국의 시민단체 연합이 페르누 3자회담에서 인간띠 제안. 독립을 위한 행동에 착수. 8월 12일 3국 운동가들 사이에 공식적 합의.

○ 리투아니아 빌뉴스 - 라트비아 리가 -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발트3국을 남북으로 잇는 620km 비무장이며 자발적인 사상 최대의 인간띠 혁명은 발트인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염원에서 기원.



○ 1989년 8월 23일 저녁 7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한 발트인 200만 명이 3국에서 동시에 15분 동안 손을 잡고 각자의 언어로 ‘자유’를 외침, 이에 맞춰 발트3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일제히 종소리 타종, 이 모든 것을 라디오를 통해 세계에 전파.

○ 1991년 9월 독립국가 주권회복.

□ 시사점

○ 자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권을 침탈당한 발트국과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이어 1910년 불법적인 한일합병으로 주권을 침탈당한 우리의 처지와 유사. 일본의 창씨개명, 언어말살, 탄압과 억압을 겪어온 약소국민의 고난이 발트 국민에게서도 느껴짐.

○ 남녀노소 자유를 외치며 밤 새워 민족음악을 노래한 발트3국과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남녀노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만

세운동은 자주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렸으며 전민족운동으로 확산.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 주권침탈과 50년 동안 이어진 러시아화에도 발트3국은 **민족음악과 같은 강한 민족문화와 고유 언어**를 끝까지 지켜냄.

○ 특히, 1869년 최초로 통합 에스토니아 음악제가 개최된 이후 4년후 라트비아 리가에서도 비슷한 축제, 노래하는 연합이 곳곳에서 열려 민족 감정을 표출하고 문화개혁운동의 중심 역할 함. 이는 **노래하는 혁명**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발트3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정착.

○ 그러나, 아직 봉합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 자국내 러시아인 시민권 문제, 러시아어 사용 문제 등 러시아화의 부담감을 안고 있음.

○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현실로 머물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다” 역사인식을 강조한 발트의 대표작가 얀 크로스.

11 중세문화의 보고 발트3국

□ 탈린 구시가지

○ 탈린 구시청과 광장

☞ 북유럽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고딕건물. 현재 모습은 1404년에 완성. 높이 64m에 8각형의 탑은 후기 르네상스 양식으로 1600년에 완공. 광장에는 야외공연장과 수공예품 시장,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트리 이벤트는 144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약국

☞ 광장 구석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 약국은 1422년 문을 연 이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 중. 약국 한편에는 중세 시대에 약국에서 취급했던 물건 전시.

○ 탈린을 탈린답게 만들어 주는 성벽과 성탑



○ 에스토니아 근대 문화의 발상지 페르누

☞ 에스토니아 여름 수도라 불리는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에스토니아 민족의 개화운동이 신호탄을 올린 곳. 발데마르 얀센에 의해 최초의 에스토니아 신문이 발간된 도시.

□ 라트비아 구시가지

○ 투라이다 성

☞ 발트3국 전체에서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중세 성 중 한곳이자 규모 또한 최대인 투라이다 성은 중세 기사와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굴다 시내에서 5km 지점에 위치. 특히 이 성은 라트비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1214년 원주민의 목재 요새가 있던 곳에 리가 대주교의 명으로 독일인들이 이 자리에 새로이 성을 쌓음.



○ 반소운동의 시발점 자유의 여신상

☞ 자유의 여신상(자유기념탑)은 오랜 지배에 맞서 싸운 라트비아인들의 투쟁의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 1차 대전 종전 후 잠시 독립을 이루었던 1차 공화국 시절 만들어진 42m 높이의 석상. 본래 1차 대전

발발 전까지 이 자리에는 제정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의 조각이 있었으나, 국민의 성금을 모아 라트비아 조각가와 건축가에 의해 1935년 완공된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탑의 맨 꼭대기에는 자유와 사랑의 여신이 세 개의 별을 들고 있으며 이 세 개의 별은 라트비아의 기원이 된 비제메, 라트갈레, 쿠르제메 지역을 상징.

○ 삼형제 건물

☞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리가에서 제일 오래된 주거용 건물. 유럽 건축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음. 1층은 상가, 2층 이후는 주거 시설로 이용. 열효율성 때문에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창문이 작아지는 특징을 볼 수 있음. 옥상층은 초기에는 창문없이 창고로 쓰이다가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으로 개조하며 창문 설치.



○ 검은머리 전당

☞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검은머리길드를 만든 조직이 리가에 지은 집. 2차 대전 중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 80%가 파괴되고, 독일의 잔재라는 이유로 소련 정부가 완전히 철거해 버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음. 지금의 모습은 2001년 리가 건설 8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복원한 것. 원래는 상인들이 리가에 머무는 동안 여관이나 연회 장소로 쓰였다가 17세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 모습 갖추.

□ 리투아니아

○ 십자가의 언덕

☞ 유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독교화된 리투아니아는 십자가를 단순히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보지 않고 민족의 정신이 담긴 상징체계로 승화. 종교가 금지되었던 옛 소년시절 십자가 언덕은 리투아니아 민족정신의 상징인 카톨릭 신앙과 소련의 전제정치가 맞서 싸우는 장소. 십자가를 세우려는 사람들과 십자가를 철거하려는 삼엄한 경비병과의 ‘십자가 전쟁’ 이

이어진 장소. 리투아니아 독립 직후인 1993년 로마 교황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하며 소련 시절 독립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종교적 힘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압제와 투쟁한 성스러운 장소 인식.



○ 트라카이 성

☞ 트라카이는 과거 리투아니아의 수도였던 곳으로 빌뉴스에서 28km 떨어져 위치. 수십 개의 호수, 나무가 우거진 숲, 그리고 섬 한가운데 환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진 붉은 성은 14세기에 건설된 이후 여러 전쟁을 거치며 파손 되었다가 1960년부터 보수 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 트라카이 주변은 수질 관리를 위해 산업 시설 건설이 전면 금지 됨.

12

총평 및 접근정책

□ 고난의 역사를 딛고 발돋움 하는 발트3국

○ 발트3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발트해 연안에 위치하여 13세기부터 1991년, 독립 이전까지 줄곧 외세의 침략과 탄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발빠른 서방정책, 산업구조 변혁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특히, 그들만의 고유문화와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나간 민족적 정체성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 1939년부터 50여년간 발트를 점령한 소련은 자국의 거점 생산시설로써 발트3국을 활용했으며 경제 분산 정책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한 후 자국민으로 근로자를 대체하였고 본토의 발트인은 시베리아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때 많게는 발트국에서 러시아인의 인구 비율이 6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까지도 시민권 부여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에스토니아는 발트3국 중 가장 작은 나라이나 통계상 제일 잘사는 나라에 속한다. 이는 에스토니아가 소련 붕괴 후 국가 전략적 정책으로 IT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며, 그 주변에는 폴란드 등 주변 정보통신 선진국의 영향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인구, 젊은 정부 내각 구성, 빅데이터 등 정보 개방 활용과 IT교육이 주효했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자국민보다 많은 연간 300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대국이 되었으며 서비스업 및 IT, 통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3,4차 산업이 70-80%를 차지하게 되었다. 라트비아에는 우리나라 법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리가항을 거쳐 러시아 내륙으로 가는 항로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트비아는 국제 무역이 활발하다. 남북 철도가 개설 된다면 내륙까지 12일이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선박을 이용해 러시아 내륙까지 40여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리투아니아는 물류업과 기계업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레이저를 이용한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소련 침략시절 리투아니아 역시 낙농업이 발달했으나, 붕괴 이후 쇠퇴했다가 서유럽 시장이 열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업체가 들어오면서 최근 다시 살아나는 추세에 있다.

○ 발트3국의 국민 소득은 대략 2만불 수준이며 월급의 30%를 사회보장비로 원천징수한다. 남은 70%의 15%는 소득세로 부과 되고, 부가 가치세로 21%를 징수해 실질적인 간접세가 50%가 넘는다. 이는 교육, 의료, 연금 혜택으로 이어져 무료 교육, 무료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에스토니아 탈린의 경우 시민권자에게는 무료로 대중교통이 제공된다. 발트3국의 평균 나이는 63세이며 67세, 70세로의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발트3국은 그들의 주권회복을 가능하게 한 노래하는 인간띠 혁명으로 유명하다. 남녀노소 200만명의 발트인이 참가해 리투아니아(빌뉴스)-라트비아(리가)-에스토니아(탈린)를 잇는 620km의 노래하는 인간띠 혁명은 그 관련 자료가 세계유네스코 기록문화 유산에 등록 되었으며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발트인의 주권회복에 대한 강력한 정체성의 결과물이다. 이는 자발적이며 비폭력적이며 민족고유의 전통인 노래하는 축제이며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일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들의 노래하는 문화는 140여년간 이어진 발트인의 민족정체성 및 민족개화의 원천이며 지금은 발트3국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독립에 대한 의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자유의 광장, 라트비아 자유의 여신상, 리투아니아 십자가의 언덕은 자주주권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발트3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확실적으로 남아있다. 나토, 유럽연합에 가입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언제라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러시아 침공시 발트3국은 전쟁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자국내에 남아 있는 러시아인 문제 및 비국적 문제, 러시아어 사용 문제 등 러시아와의 미묘한 대립이 남아 있다.

○ 발트3국은 중세시대의 문화유산이 구시가지에 잘 보존되어 있고 이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웅장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발트3국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13세기 이후의 잘 보존된 유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 유산이다. 발트3국은 사회 산업구조에서 볼 수 있듯 70-80%가 서비스업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빌뉴스는 젊은 감각의 끊임없는 이벤트와 과감한 홍보로 리투아니아를 단숨에 세계에 각인 시켰다. 여름의 백야와 연계된 축제, 수십만명이 참가하는 음악제, 겨울 한 달 동안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마켓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 발트의 겨울밤은 무척 길지만 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수많은 조명으로 물들어 있다. 이들이 겨울을 이겨내는 비법이다. 이들의 암울했던 과거를 이겨냈던 저력은 무엇인가? 민족의 고유문화와 언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대목이다.

□ 접목할 만한 정책 접근

○ 근현대사 건축물 보존과 역사에서 얻는 교훈

☞ 일본의 잔재, 지울 것인가? 남길 것인가?

이천에는 일제 강점기 시기 및 1950년대 전후의 근현대사적 건물이 몇몇 남아 있지만 대부분 사라져 영영 역사의 뒤편길로 묻히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은 부흥의 역사에 앞서 고난의 역사를 뼈에 새기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클 것이다. 침략과 수탈의 현장, 한 시대를 이겨낸 건축물은 그 자체로써 이미 역사가 되었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보존에 대한 논의도 꺼리는 입장이다. 건드리면 아파오는 과거를 잊고 싶은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천에 몇 남아 있지 않은 일제 강점기 시기, 근현대 시기의 건축

물(상가, 관공서, 무도관, 개인가옥 포함)들을 조사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보존 방안과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적 메시지를 이제는 후손에 전달할 때라고 보여 진다. (※복원되는 과정과 시간도 역사·문화의 일부로 승계된다.)

○ 스쿨존 내 등하교 승차 주차면 제공

☞ 학교 앞 도로는 등교 시간 때 자녀를 통학시키는 차량으로 혼잡한 경우가 많다. 자녀를 등교시키는 자가 차량이 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도로에서 학생들을 비상 하차 시키면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등하교 특정시간 임시로 정차 할 수 있는 정차구간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보장 될 것이다.

○ 예스파크 홍보와 활성화 방안

☞ 이천은 쌀, 복숭아, 도자기 외에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편이다. 이천 도자기의 판매촉진과 관광화를 위해 신문에 예스파크를 조성하고 상업적인 운영에 들어갔지만 다양한 문화행사와의 연계가 부족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인접한 예스파크는 홍보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공중에 눈이 번쩍 띄는 시설물만 있어도 지나가는 차량에서 한번쯤 눈길을 돌릴 것이다. 이런 작용을 호기심으로 이끌어 예스파크를 방문하게 해야 한다. 발트3국은 광장과 거리마다 다양한 조명과 프리마켓,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상가마다 설치된 크리스마스 장식 등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달 간 지속된다. 이천 예스파크는 불가능한 것인가? 화려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거리행진 페스티벌 등을 기획하고 해마다 꾸준히 진행한다면 사람들의 발길을 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도자기 파편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가령, 대형 도자기 무덤과 초고형 파편 탑, 도자기 타일 거리)과 경매 등 연중 지속적이며 때론 계절별 특화된 이벤트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 광장이 필요한 이유

☞ 발트3국의 크고 작은 도시는 광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 광장은 혁명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문화예술을 펼치는 공간이 되기도 하다. 다만, 도심 속에 위치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네 광장은 어떠한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구조다. 오다가다 판을 벌릴 수 없다는 얘기다. 광장의

순기능에 족쇄를 채운 경우다. 광장은 도심에 그것도 변화가 중심에 위치해 있을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천시청 광장은 왜 아무도 찾지 않는가? 세무서 앞마당은 왜 방치되고 있는가? 그럴거면 차라리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천의 제일 좋은 뒤편에 광장이 여러 개 생기고 광장마다 자생적인 프리마켓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인가? 트렌드는 사람이 만들어 가고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이천의 광장이 광장답고 규제에 자유롭고 많은 뜻밖의 일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도시경관 조형물

☞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로 뽑힌 「체스모양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대형으로 아름다움과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우리시 크리스마스 트리는 분수대 작품을 훼손(?)하며 성탄절, 부처님 오신날 장식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이 다가가서 사진 한장 찍지 못하고 있다. 리트아니아 대성당 옆 트리는 광장에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사진을 찍고, 트리 안에 조성된 좌판에서 음식도 먹고 기념품도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도 교통이 혼잡한 분수대 오거리에서 분수대 작품을 가리지 말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추억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에 크리스마스 트리, 부처님 오신날 장식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어떠한 도시경관 조형물을 멋있게 만들고 설치하는가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